



# 한림성심학보

제261호

발행일 2021년 04월 30일 금요일  
한림성심학보사 (033)240-9066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선정

발행인 우형식 | 주간 이봉숙 | 편집장 서아영 | 디자인 최예원 | 간사 김성민 |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 창간일 1988년 6월 22일

## 01

도서관 테이블 설치로 교내 환경 개선  
“식목일, 나무 심기로 뜻깊은 시간”  
학생 건강을 위한 식대 보조  
원거리 장학금, 너도 받을 수 있어

## 02 교육

한림성심역량인증제 독서 인증 안내  
후진학선도형사업단 교육 과정 거버넌스 회의 '동행'

## 03 학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디지털 문화콘텐츠와 Azomat과의 인터뷰  
오늘도 열심히! 코로나 19속에서도 학업은 지속된다

## 04 사회

함께해요, 클린강원 패스트푸드 춘천에서 불러주세요~  
K-청년 주시기가 급증한다?

## 05 정보

#StopAsianHate(아시아 혐오를 멈춰라)  
빨리빨리 문화 속 위험한 배달 나랑 같이 걸을까?  
교직원 및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Think Wise'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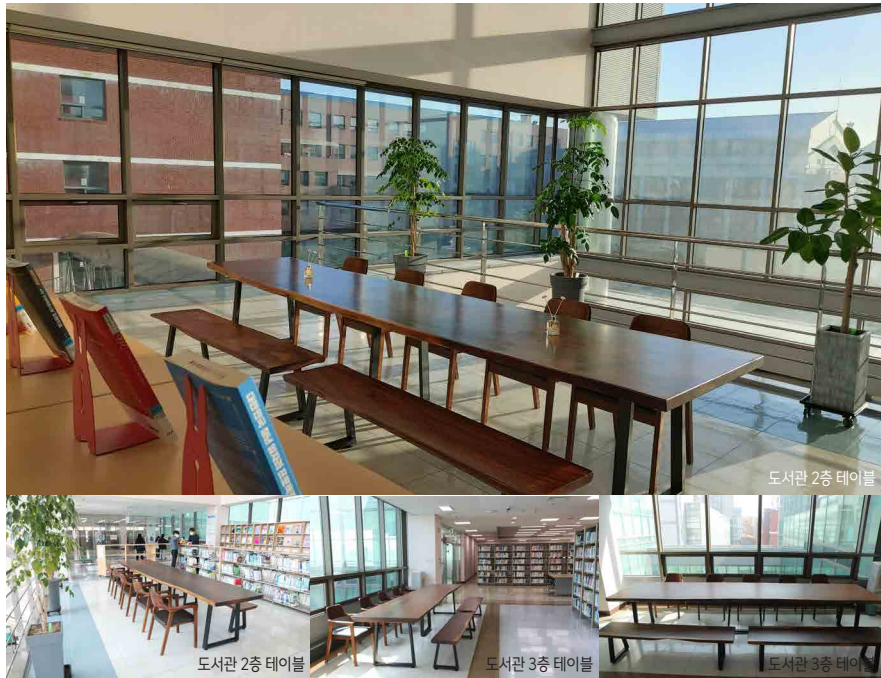
## 06-07 종합기적

우리학교 유튜브 랭킹 TOP 5 지구를 구하라!  
우리대학에 신입 교수가?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미래를 모험으로 나를 위한 아침을!  
2021 온택트 학습법 컨설팅 실시

## 08 웹툰

한림성심학보 웹툰 제1화 프로통역러, 수고했어 오늘도  
한림성심학보의 새얼굴, 학생 기자들을 소개합니다

## 도서관 테이블 설치로 교내 환경개선



도서관 2층 테이블

도서관 2층 테이블

도서관 테이블 설치

도서관 3층 테이블

도서관 3층 테이블

우리대학은 교육환경 개선과 도서관내 학생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 2층과 3층에 테이블을 각각 설치하였다. 테이블 설치에 약 1,2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재단(운대원 이사장)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었다. 학생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길 바라며 새롭게 설치된 테이블을 아껴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간사 김성민

## “식목일, 나무 심기로 뜻깊은 시간”



나무심기 현장

우리대학은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나무심기 행사에는 우형식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참여하며 교내 곳곳에 흑광명자, 상수리나무, 라일락, 밤나무, 계량꽃 목단, 산수유, 사과나무 등 140주를 식재했다.

우형식 총장은 “이번 식목 행사를 통해 재학생, 교직원들이 식목일의 의미를 느끼고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환경 보전에 힘쓸 것이고 재학생, 방문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대학은 2015년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클린데이’로 지정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미화에 앞장섬으로써 클린캠퍼스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간사 김성민

## 학생 건강을 위한 식대 보조



학생식당

우리대학은 14일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식대를 보조해주기로 결정하였다.

한림성심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점심을 거르거나 Fast Food로 식사를 대체하는 인원이 많다고 판단, 학생들의 건강을 우려해 13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교내 학생식당의 교직원용 식사 메뉴를 약 33% 인하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식당은 4인 테이블에 2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식당 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 19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전산팀에서는 서틀버스에 탑승하는 인원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틀버스 바코드시스템’을 자체 개발함에 따라 교내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선 파악을 통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우형식 총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교내 방역과 원격강의 지원에 힘쓴 △문훈국 시설관리팀 직원 △최기원 총무팀 직원 △최동기 영상미디어콘텐츠과 조교를 모범직원으로 선정하는 등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간사 김성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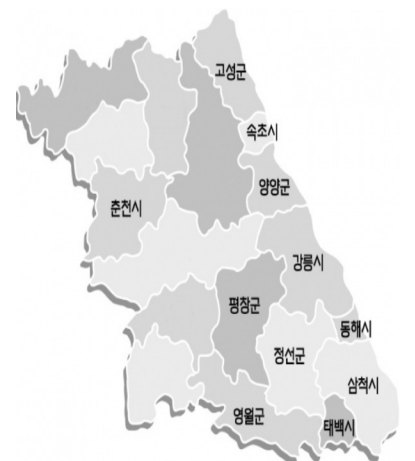
## 원거리장학금, 너도 받을 수 있어

1. 지급개요
  - 원거리 학생의 통학 및 주거비를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지원 장학금 신설
  - 학생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교내 장학제도 보완(교내 : 고교장추천장학금 / 교외(지자체) : 강원도장학금)
2.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 일반과정 신입생 중 아래 각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1) 강원도 외 고교 출신 신입생
  - 2) 춘천시와 인근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내 고교 출신 신입생(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양, 영월, 태백, 평창, 정선)
3. 신청방법 : 별도 신청절차 없음(출신고교 정보를 통해 대상자 선발 후 일괄 지급)
  - \* 강원지역 검정고시 출신자는 입학일(2021.3.2.) 기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록 기준으로 신청접수 후 지급
  - (제출서류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 지급시기 : 1학년 1-2학기(입학연도에 한하여 지급)
5. 지급금액 : 학기당 250,000원
6. 문의사항 : 학생지원팀(240-9228, 9459)

원거리장학금 안내

지난 28일, 우리대학은 원거리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거리 장학금을 신설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거리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강원도 외 고교 출신 신입생, 강원도 춘천시와 인근 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내 고교 출신 신입생이다. (대상지역: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양, 영월, 태백, 평창, 정선)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생지원팀에서 확인 후 해당자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선발된 인원은 장학금 수령을 위해 통장 사본을 학생지원팀에 제출하고, 최종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원거리장학금은 해당연도 총 500,000을 받는다. ‘원거리 장학금’의 올해 예산은 약 189,500천원으로 앞으로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책정하여 매년 지급할 계획이다.

주의할 점은 해당연도(2021년) 1학년 신입생만 수령이 가능하며, 휴학 등의 사유로 복학 시점이 내년(2022년)이 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교내장학금은 교내근로장학금, 면학장학금, 한림성심 BEST마일리지장학금 등의 생활비성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장학금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내장학금 사향을 충분히 비교 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상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학생지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033-240-9226)



(사진 = 편연드마크 제공)

기자 심원보 2whfh2@naver.com



# 한림성심역량인증제 독서인증 안내



참가대상 | 재학생 (2018~2021학번)  
인증기간 | 입학학기 ~ 졸업학기

### > 인증조건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독서인증 권수	10권	15권	20권
도서 선정	도서관 권장도서 + 자유 선정도서		

### > 인증방법

- 01 도서관 권장도서 또는 자유선정도서 선택하여 독서
- 02 서평 작성 (700~1000자 이내 한글파일)
- 03 카피킬러사이트(www.copykiller.com) 접속 후 표절심사 실시 \*(1일 3회제한)
- 04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다운로드
- 05 학생이력관리시스템(HCAP) 로그인 후 경력관리 접속
- 06 서평파일(hwp), 표절검사 파일(pdf) 각 1부 업로드
- 07 도서관에서 확인 후 인증 처리

### > 독서인증 시 혜택

한림성심 BEST 마일리지 1권당 20점 부여  
(1학기마다 최대 5권, 최대 100점까지 인정)

독서인증안내 포스터

한림성심역량인증제는 학생들의 인성역량, 직업기초역량, 전공역량,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18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 생활 동안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인증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들은 졸업식에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림성심역량인증제는 H-cap 및 한림BEST마일리지 장학금 제도와 자동 연계되어 일석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림성심역량인증제 이수요건은 다음의 표와 같다.

영역	항목
인성	도서관 권장 도서나 자유도서를 읽고 독후감 제출 (700자~1000자 이내) - 2년제 10권, 3년제 15권, 4년제 20권
직업기초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ITQ B급 이상, MOS 자격증 1개 이상
전공자격	학과지정 전공자격증
글로벌	항목 중 1개 선택 TOEIC 및 JPT 550점 이상, TEPS 450점 이상, JLPT 2급 이상 HSK 4급 이상, 해외현장실습, 화상영어회화(4주), 스마트러닝일본어회화(4주)

(표 = 한림성심역량인증제 이수요건)

한림성심역량인증제 중 인성역량부분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인증을 받아야 한다. 독서인증 이수요건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독서인증 권수	10권	15권	20권
도서 선정	도서관 권장도서+자유 선정도서		

(표 = 독서인증 이수요건)

그렇다면 독서인증은 어떻게 할까? 우선 도서관 방문이나 도서관 앱을 통하여 권장도서 125선과 자신이 읽고싶은 책을 선정하여 대출을 한다. 그 다음 논평이나 감상 등을 쓰는 서평을 700자에서 1000자 이내 한글파일로 작성한다. 그 다음 자신의 서평을 카피킬러사이트에서 이상이 없는지, 다른 문서의 문체와 비슷하지 않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표절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표절검사는 1일 3회로 제한되고, 카피킬러사이트는 회원가입이 필수이므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한다. 표절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 표절검사 확인서를 다운받으면 된다. 서평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한림성심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HCAP의 경력관리에 접속하여 서평파일과 표절검사 확인서 두개를 업로드하면 완료된다. 총 5가지의 절차를 완료하고 업로드만 하면 되니 참여가 매우 쉽고 할 수 있다. 독서인증으로 문법도 높이고 좋아하는 책도 읽고 한림성심 BEST 마일리지까지 받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 평소 책을 읽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독서에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

기자 서여영 tjkdud1016@naver.com

## 후진학선도형사업단 교육과정 거버넌스 회의 '동행'



거버넌스 회의 현장



거버넌스 회의 현장

2021학년도 교육프로그램 일정 및 운영에 대한 소개와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상호 협의를 위하여 마련된 이번 회의는 총 18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3개 교육과정에 대한 열띤 회의가 이루어 졌다.

우리대학은 2020년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III유형)사업에 선정되어 주권대학으로서 노인케어 및 영유아케어, 참살이(食생활 코디네이터)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거버넌스 회의를 22~23일 2일에 거쳐 진행했다.

신창돈 후진학선도형사업단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오늘 모여주신 전문가들과 대학 간의 정보 공유 및 관계 구축은 성공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문가들의 노력이 학생 만족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것과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달라”며 책임있는 교육에 대한 당부의 이야기를 건넸다.

한편, 후진학선도형사업 모집은 4월 19일부터 시작하여 개강 1주일 전까지 모집하게 되며 교육과정 별로 모집기간 및 교육시작일이 다르므로 강원지역직업교육 거점센터 홈페이지(<http://scsc.hsc.ac.kr>)에 접속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간사 김성민

우리대학 후진학선도형사업단은 교내 평생학습실에서 노인케어 및 영유아케어, 참살이(食생활 코디네이터)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거버넌스 회의를 22~23일 2일에 거쳐 진행했다.



#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디지털문화콘텐츠과 Azamat과의 인터뷰

**호**흡기 바이러스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국가 간의 이동이 어려워진 요즘, 자국을 떠나 해외에서 특별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을 한림성심대학교 유학생 2학년 Azamat과 인터뷰를 해보았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하게 온라인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 Q.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된 한림성심대학교 디지털문화콘텐츠 학과 2학년 Azamat(아자맛)이라고 합니다.

### Q.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나요?

A.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 Q. 그럼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겠네요.

A. 네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압니다. 2019년에 한국어능력자격시험(TOPIK) 3급을 취득했어요. 1~6급 까지 있는데 3급이면 중급 정도의 실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험 보면 더 잘할 거 같아요 (웃음)

### Q. 유학 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 또는 우리 학교/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A. 한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를 먼저 다니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전공에 대한 공부도하기로 결정했고, 디지털문화콘텐츠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IT 산업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경험이 많고 실력 좋은 한림성심대학교 교수님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문화콘텐츠과 아자맛 학생과 인터뷰 현장



국제교류센터 담당자와 함께 운동을 하는 모습

### Q. 학교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처음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왔을 때, 베트남,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 학생들과 매주 금, 토, 일마다 막국수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바다도 가고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학연수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여행했던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Q. 한국 또는 학교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한국은 안전하고 법률이 잘 확립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의 높은 취업률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때문에 사람(학생)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점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죠(웃음).

### Q. 현재 배우고 있는 전공을 통한 미래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서 본국으로 돌아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라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 후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 공부하고 배운 기술, 지식들을 잘 적용시켜보려고 합니다.



한림성심대학교 어학연수 과정 친구들과의 식사 모습

### Q. 유학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A.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음식이 잘 안 맞아서 힘들었어요. 한국에 매운 음식이 많아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 Q. 우즈베키스탄에는 매운 음식이 많이 없나요?

A. 네. 보통은 고기를 많이 먹는데 맵게 먹진 않아요. 김치의 맵기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김치도 조금 매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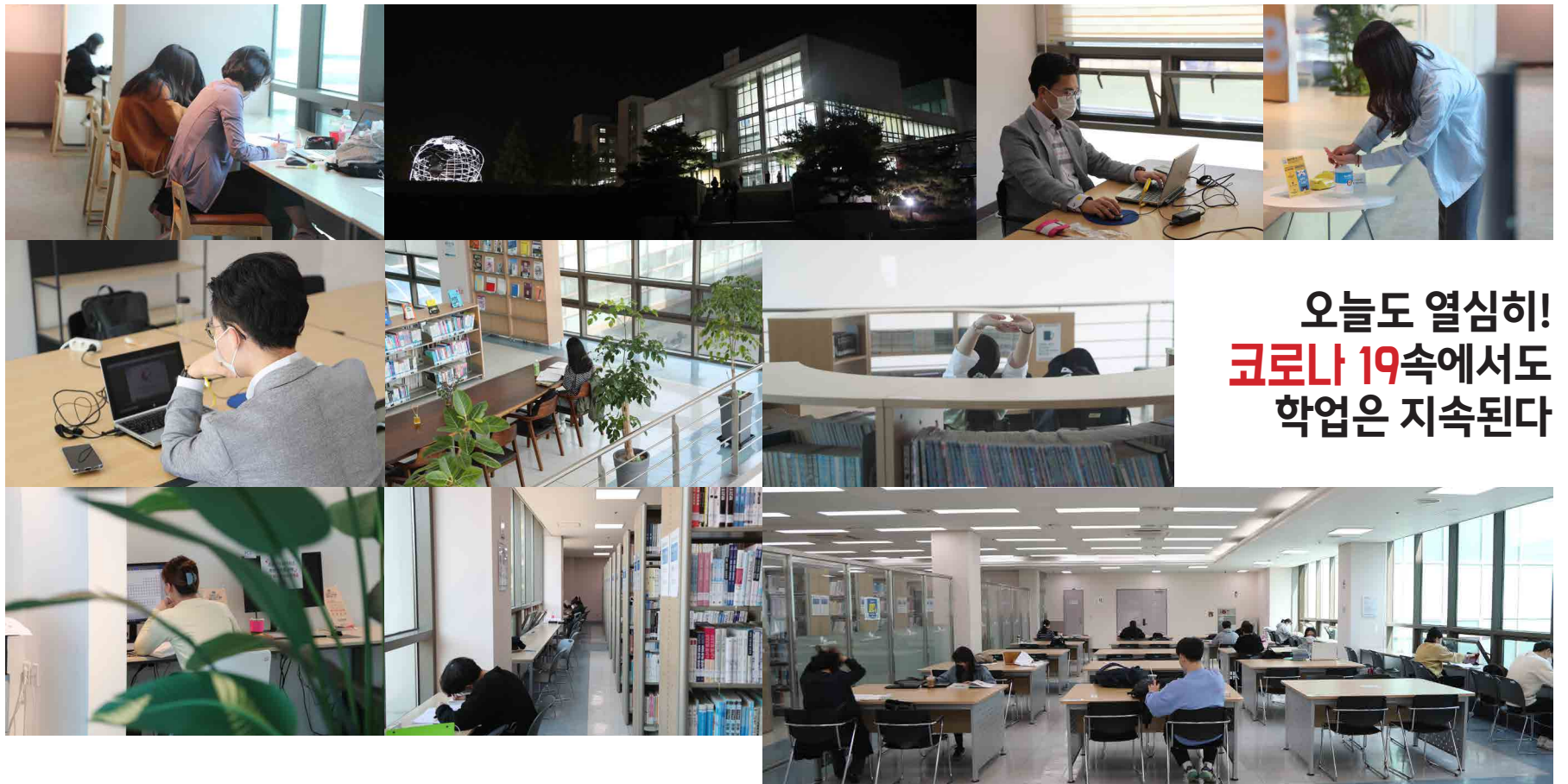
### Q. 다른 유학생에게 한국(또는 한림성심대학교)을 추천할 의향이 있나요? 추천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유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 취업률이 높잖아요? 한림성심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할 때에는 취업 연계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서울이나 먼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통해 등교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추천하고 싶네요.

### Q. 마지막으로 인터뷰 소감과 학보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을 겪으면서 제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 좋아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박지호 jihoo00214@naver.com  
기자 엄지현 elwkdl576@naver.com



오늘도 열심히!  
코로나 19속에서도  
학업은 지속된다

### 함께해요, 클린강원 패스포트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녹아든 행동 습관이 하나 있다. 바로 어떤 음식점을 들어 가든 들어가기 전에 방명록을 써야 하는 것이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동선에 있는 사람을 조사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지침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 정보 노출, 번거로움 등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개인 정보도 노출되지 않고 간단하게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소개할 '클린강원 패스포트'라는 애플리케이션에 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만 보아도 심심치 않게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클린강원 패스포트'란 무엇일까? 알아보자.



(사진 = 강원일보 제공)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강원도가 2020년 5월 20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 19 방역 관리를 위해 도내 음식점 및 관광지, 숙박업소 등에 설치·시행한 전자 스탬프 방역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이용자의 발열 여부와 방문 시간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검색하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QR코드 입장과 비슷하게, 스마트폰의 NFC 읽기/쓰기 P2P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로 클린강원 패스포트 앱을 켜 다음 방문자가 시설 안에 위치한 스탬프 형태의 QR코드를 찍으면 위치와 이용 시간 등이 서버에 자동 저장된다. 이 기록은 30일 보관 후 자동 삭제되며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 정확한 이용자 파악이 가능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처음 가입 시에 2,000포인트를 자동으로 지급한다. 이 포인트는 한 번 찍을 때마다 100포인트씩 지급되며, 모아서 5천 원, 1만 원, 5만 원 단위로 모바일 강원 상품권의 구매가 가능하다. 하루 최대 포인트는 300 포인트이며, 한 달 최대 포인트는 3,000포인트이다. 포인트 적립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인트 적립은 4월 30일에 종료된다. 5월 1일부터는 수시 각종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포인트를 모아서 강원 상품권을 구매하는 즐거움도 있으나, 음식점을 방문할 때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한 번 찍는 것만으로도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인트 적립 종료가 되어도 유용한 앱이다. 강원 상품권을 구매하면 하루 이틀 뒤에 문자로 편번호가 도착한다. 이를 제로 페이나 등록 앱에 등록하면 강원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안내, 이용방법 소개는 클린강원 패스포트 앱 내에 소개되어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이용자는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참고하자.

여기까지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무엇인지,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강원도 내에서 개인 정보 노출 없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포인트를 모아서 강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4월을 끝으로 포인트 적립이 종료됐으나 애플리케이션은 계속 사용 가능하며, 각종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함께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기자 안소연 soy0805@naver.com

### 춘천에서 불러봄내~



(사진 = 춘천시 제공)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달, 포장음식의 섭취가 늘었다. 이에 저번 호에서는 배달을 하지 않는 작은 가게를 찾아가 음식포장을 하자는 '한끼 포장, 한끼 연대'를 소개했다. 이번 호에서는 집에서 편하게 배달 받을 수 있는 착한 앱을 소개하고자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민간배달앱의 독과점을 막고, 소상공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춘천시에서도 '불러봄내' 앱을 출시했다. 불러봄내는 입점비와 광고비, 주문 중개 수수료가 없어 점주의 부담이 대폭 감소한다. 또, 제로페이앱을 이용하여 10% 할인된 가격으로 춘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불러봄내앱에서 이 상품권으로 주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소비자는 제로페이앱에서 춘천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여 불러봄내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불러봄내'는 지난해 12월에 출시하여 아직 가맹점이 500여 곳밖에 되지 않지만,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춘천사랑상품권으로 할인도 받고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착한 소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불러봄내'가 강원도 공공배달앱인 '일단시키'로 통합된다고 한다. 통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배달앱을 모니터링하고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기자 서아영 tjdkud1016@naver.com

### K-청년 주식이 급증한다?

주식을 전문인, 사업자, 혹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끝이 난 듯하다. 주식을 시작하는 2030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당장의 친구에게도 주식을 하는지 물어봤을 때, 할 예정이라고 하거나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적잖게 존재한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자신이 사고 싶었던 아이패드, 노트북을 샀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주식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걸까?

단순한 취미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취미 개발이 아니라 자금 개발이라는 말도 있다. 당장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상황과 취업난은 청년들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든다.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값은 나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데 월급이 집값만큼 급증할 리도 만무하다. '평생 빚덩이에 앉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청년들을 엄습하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시작된 것이 바로 주식의 붐이다. 급변하는 시장은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바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주식 동아리도 늘어나고 있어 입문반부터 실전반까지 체계화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꽤 높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 신조어인 이른바, '영끌' 투자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의 약자로, 청년 세대가 투자에 얼마나 관심이 급증했는지 알 수 있는 단어이다. 한 해 새로 개설된 주식계좌는 7백23만 개, 이중 3백92만 개를 20대와 30대가 개설했다고도 보고했다. 거의 2분의 1 가까이 되는 비율을 청년들이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 열에 아홉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거나, 할 생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걸까? 바로 '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 때문이다. 포모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의되며, 영끌투자의 시점에서 본다면 타인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 요컨대 청년들은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버락거지'가 되어 있을 것 같아 두려운 것이다. '버락거지'란, 자신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등하여 부동산,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들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서울에서 10년 전 2억이었던 25평의 아파트는 현재 9억에 달하고 있다. 그것도 매매가 아닌 전셋값의 가격이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2억으로 어떤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나?



(사진 = Freepik.com)

투룸으로 된 주거공간 하나를 겨우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억이라는 가격은 청년들에게 결코, 쉬운 값이 아니며 아르바이트, 취업난에 시달리는 것을 더하여 압박감을 준다. 요즘 청년세대는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경험하기,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렌트하여 여러 외제차를 경험하기 등과 같은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 현상이 마냥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청년세대의 도전정신으로 생겨나기만 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분명한 건, 다양한 경험을 즐기는 청년이라고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도 좋으나, 사람의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고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앞날을 대비해서 당장의 목돈을 얻을 수 없는 청년들의 선택이 주식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주식을 하는 청년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어떠한 이유로 그들이 주식을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한 발자국 아닐까?

기자 안소연 soy0805@naver.com

# #StopAsianHate(아시아 혐오를 멈춰라)

지난 3월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아시아계 대상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상자는 8명으로 이 중 한국인 여성이 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 중요범죄 혐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19가 퍼지며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과 중요범죄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미국은 전 세계 중 아시아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비영리단체 '아시아·태평양경제(AAPI) 중요를 멈춰라'라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1년간 미국 내 아시아계 대상 중요 관련 사건은 4천여 건에 육박한다고 발표했으며, 아시아 퍼시픽 정책기획위원회(A3PCON)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서 올해 1월까지 미국 47개 주에서 2천 8백여 건의 중요범죄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미국 내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현상이 아니다. 1882년 5월 6일, 미국은 '중국인 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을 만들었다. 중국인의 이민과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이였다. 이후에도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차별이 감소하기는커녕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내 아시아인은 '모범적 소수인종(Model Minority)'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 내 아시아인의 비율은 다른 인종보다 적지만 학력이 높고 회계사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형체 뉴욕 병행대학 한국학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관념은 다음의 문제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첫째, 미국 사회 내 인종적·구조적 불평등과 갈등을 은폐한다. 둘째, 다양한 국적, 종교, 문화 등을 가진 이들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취급한다. 셋째, 중산층 아시아계와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사회경제적 격차와 차별을 고착화하고 갈등을 무시한다. 넷째, 미국 내 구조화 된 인종 차별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 감수하도록 강요한다. 다섯째,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백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들로 인식하게끔 만든다. 이는 대표적 문제일 뿐 다른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해 관련 논의 기구 설치,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으며, 아시아계 미국 사회 공헌을 알리기 위한 인터넷 도서관 설립, 아시아계를 향한 편견과 혐오 예방 연구 기금 투입 등도 제시했다. 현재 SNS에서는 #StopAsianHate(아시아 혐오를 멈춰라)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인종차별 혐의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아시아계 스타들은 물론 국내 한인교포 스타들 수많은 스타도 동참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만큼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길 희망한다.

기자 권아연 doveforme@naver.com



(사진 = 중앙일보 제공)

## 빨리빨리 문화 속 위험한 배달

### 배달앱 등장 전과 후 배달 산업 구조



(사진 = 뉴스토마토 제공)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답게 뭐든 빠르게 해낸다. 그러나 이런 문화에는 단점이 있는데 그중에 '배달산업'이 있다. 길을 걷다 보면 늘 도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를 볼 수 있다. 이들이 이토록 위험하게 운전하는 이유는 배달 건수마다 돈을 받으므로 최대한 배달 건수를 늘리려는 의도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빨리빨리'를 요구받기 때문이다. 음식의 경우 대개 신속한 배달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때때로 과도히 신속을 추구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고객이 주문 앱을 통해 G사 편의점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곳은 날씨와 배달량의 증가로 배달이 늦게 도착하였다. 감정이 상한 고객은 해당 앱 내 G사 편의점 리뷰에 별점을 1개 주며 배달이 늦었다며 화를 낸다. 편의점 입장에서는 리뷰 하나하나가 영업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 소속인 배달 기사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는 작년 동기 대비 5.5% 감소하였으나, 이륜차는 9% 증가하였다고 한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 증가하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배달 사고 사망자 중 18~24세 청년은 44%(72명 중 32명)에 달한다. '배달'은 청년 산재 사망 원인 1위였다.



(사진 = 한국일보 제공)

그러나 플랫폼은 배달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플랫폼의 구조 때문이다. 현재 배달산업의 구조는 소비자->주문대행업체->음식점->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순이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이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업체들의 경우 자신들은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 법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자연히 배달 기사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처럼 과도한 빨리빨리 문화와 잘못된 구조의 결합은 배달 기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소비자의 인식과 업계 구조의 변화가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자 권아연 doveforme@naver.com

## 나랑 같이 걸을까?

신체활동 권장량에 따른 걷기 권장량

빠르게 걷기 1주일 최소 150분

매우 빠르게 걷기 1주일 최소 75분

빠르게 걷기 2분 = 매우 빠르게 걷기 1분

(사진 = 춘천시 보건소 제공)

춘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춘천시보건소에서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18개 시군이 함께하는 2021년 이달의 건강이슈 공동사업 '신체활동과 비만'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걷기 운동은 코로나로 충분한 운동을 하기 어려운 요즘에도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누릴 수 있는 신체활동이다. 걷기 운동의 효과는 햇빛을 통하여 얻는 비타민D로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을 예방한다. 또한 저강도 운동이기에 장시간 지속해도 체력 소모가 크지 않아 오랜 시간 걸을 수 있어 근력 향상과 체지방 감소가 가능하다. 이와 대비된 빠르게 걷기 운동은 고강도 운동으로 걷기 운동보다 더 많은 근력 향상과 체지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신체활동 부족을 비대면 건강걸기로 극복하자!

기자 심원보 2whfh2@naver.com

## 교직원 및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Think Wise' 교육 실시



"Think Wise" 교육

23일 교내 강의실에서 교직원 및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Think Wise' 교육을 실시했다. 'Think Wise'란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정보를 시각적으로 배치하고 구조화하며 정리하는 디지털 매핑 도구로 다이어그램, 조직도, 플로차트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각적 사고를 가능케하는 도구라는 것이 대학 측 설명이다.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총 예산 27,350천원의 'Think Wise' 교육은 우선 신청한 교직원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교육을 실시하며, 15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차로 나누어 4월 말과 9월 중 각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영식 혁신지원사업단장은 "Think Wise 교육을 통해 교수들은 시각화된 강의 콘텐츠 제작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강의를 구성케 하고, 학생들은 구조적 사고를 통해 학습능력을 강화하여 쌍방 소통이 가능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본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한림성심대학교는 2021학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약 26억원(가배정액)을 예산으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간사 김성민

# 우리학교 유튜브 랭킹 TOP 5

**숏폼 콘텐츠(short foam contents:1~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한림성심대학교에서도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홍보 및 학생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유튜브에 한림성심대학교를 검색했을 때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보에 소개된 순위는 학교 자체에서 만든 콘텐츠만 포함하고 있으며, 4월 16일 10시 기준 조회 수로 작성했다. 유튜브 영상 목록으로는 한림성심대학교 졸업생 기념 영상, 2020학년도 한림성심대학교 우형식 총장 인사말, 한림성심대 물치 5기 물치스타일, 2017 한림성심대학교 한빛체육대회, 한림성심대학교 간호학과 홍보동영상이 있다.**



2018년도 졸업기념 영상 (사진 = 유튜브 제공)

유튜브 조회 수 1위! 바로, 18년도에 졸업학생들의 기념 영상이다. 2018년 3월 7일에 제작되었으며, 조회 수 4,046회를 기록했다. 한빛체육대회, 한빛대동제, 현장실습, 경진대회, 학과별 행사 및 단체 사진의 모습이 담겨있다. 마지막에는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문구가 담겨있다.



우형식 총장 인사말 (사진 = 유튜브 제공)

조회 수 2위는 2020학년도 우형식 총장 인사말 영상이다. 영상은 2020년 4월 7일에 제작되었고, 조회 수 2,829를 기록했다. 20년은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해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새내기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 와보지 못한 해다. 우형식 총장은 과거의 전염병들을 극복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코로나 19도 다 같이 이겨내자고 격려했다. 또, 새로워진 학교를 소개하며 하루빨리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고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 후반부에는 학교의 이념을 소개하며, 열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 시간을 행하라는 '만 시간의 법칙'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조회 수 3위는 한림성심대 물리치료과 5기 물치 스타일 영상이다. 2012년 11월 19일에 제작되었으며, 조회 수 2,674회를 기록했다. 2012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물리치료과만의 재치있는 스타일로 개사하고, 학교 곳곳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뒤에는 메이킹 영상이 있어 재밌는 NG 장면도 함께 볼 수 있다.



물치스타일 영상 중 일부 (사진 = 유튜브 제공)



한빛체육대회 영상 중 일부 (사진 = 유튜브 제공)

조회 수 4위는 한림성심대학교 한빛체육대회 동영상이다. 2017년 11월 28일에 제작되었고, 조회 수 2,307회를 기록했다. 유기운 총학생회장의 인사말과 우형식 총장님의 격려사로 시작된 영상은 학과별 축하공연과 림보, 축구, 단체줄넘기, 농구, 피구, 족구, 계주 등 다양한 모습이 담겨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체육대회와 대동제를 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영상의 활기찬 캠퍼스가 그리운 마음이 든다.



간호학과 홍보 영상 (사진 = 유튜브 제공)

**한림성심대학교  
국가시험 100% 합격을 자랑하는  
간호학과로 오세요**

조회 수 5위는 한림성심대학교 간호학과 홍보 영상이다. 2020년 4월 23일에 제작되었고, 조회 수 1,992회를 기록했다. 영상은 45초로 아주 짧은 분량이지만 간호학과의 교육목표, 간호학과 실습실, 멘토링 제도 등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이 잘 담겨있다.

기자 서어영 tjkdud1016@naver.com

## 지구를 구하라!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하였다.

대표적인 문제는 지구온난화 현상이며,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우리는 매해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홍수, 폭염 등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지구 온난화에 해결방안은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자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플라스틱 다이어트 운동들을 소개한다. 천연자원은 순환자원으로 돌리고, 쓰레기도 자원으로 돌리면 우리에게 자원으로 다시 돌아온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하여 지구를 구해보자.

기자 심원보 2whfh2@naver.com

**1**

**텀블러(개인컵),  
다회용 컵 사용 생활화하기**

**8**

**과도하게 포장된  
제품 소비 줄이기**

**2**

**장 볼 때는  
장바구니(에코백) 사용하기**

**5**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줄이기**

**3**

**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에  
담아가기**

**6**

**음료 구입 시  
**무라벨** 제품 우선 구매하기**

**4**

**음식 배달 주문 시  
**안쓰는 플라스틱** 거절하기**

**7**

**온라인 상품 주문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9**

**포장 안한 상품 등  
구매하기**

**10**

**세탁 비닐 등  
불필요한 비닐 사용 줄이기**

## 우리대학에 신입 교수가?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벌써 개강한지 한 달이 지났다. 재학생은 다시 학교에서 학우와 소통을 하는 마음에 들떠있고, 신입생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에 들떠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캠퍼스에 대한 낭만은 사그라들었지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 학과 교수나 학교 직원들은 오늘도 열심히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번 2021학년도 1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교수들이 임용되었다. 지면 관계상 한분을 모셔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자.

### 치위생과

#### 도유정 교수

2021년 봄이 오기도 전에 제 마음속에 이미 꽃이 피었습니다. 멈추었던 202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위생과 도유정 교수입니다.”



치위생과 도유정 교수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성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와, 우리 학생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교수가 되고자 합니다. 치과임상에서 근무할 때 환자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행복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 또한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학생들은 제게 또 다른 스승입니다. 단단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학생들을 한명씩 마음으로 잡아 견고함이 녹아들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고 예쁘다 곱다 잘 한다 칭찬하며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 워크숍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작은 것 하나에서도 귀한 마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학교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꽃잎이 떨어지고 철마다 예쁘게 피워내 잠깐의 기쁨을 주고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지만,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새삼 대견하다는 생각으로 해마다 꽃을 피우겠습니다.

이상 치위생과 도유정 교수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다. 다른 신입 교수들도 있지만 시간상 다 소개 못하는 점 아쉬움을 표한다. 우리 모두 각지에서 노력하는 교수와 본분을 다하는 직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하자.

간사 김성민

## 미라클 모닝으로 나를 위한 아침을!

<h3>1 미라클 모닝이란?</h3> <p>새벽 기상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침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라클 모닝' 챌린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서, 운동 등 아침의 루틴을 만들고 이를 인증 기록하는 챌린지다.</p>	<h3>2 미라클 모닝 실천방법!</h3> <p><b>1.일찍 일어나기</b> -미라클 모닝은 적정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 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 <p><b>2.새벽에 잘 일을 미리 계획하기</b> -아침에 할 일을 계획해둔다면 그 시간당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더 좋다.</p>
<h3>3 미라클 모닝의 장점!</h3> <p>온전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새벽시간은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하거나, 온전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p>	<h3>4 미라클 모닝의 단점?</h3> <p>수면 시간을 바꾸는데 큰 노력이 필요하며 불규칙하게 실천했다가는 오히려 일상이 피곤해질 수 있다. 저녁에 집중도가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p>

(사진 = 잡이지 제공)

**초**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미라클 모닝 챌린지가 유행이다. 미라클 모닝은 이른 아침 일어나 운동이나 독서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2016년 출간된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이란 책을 통해 시작하였는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하며 국내에서 열풍이 분 것으로 보인다.

이 챌린지의 목적은 신분 상승을 위한 스펙 쌓기가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보내기'에 있다. 많은 현대인은 새벽 늦게까지 SNS를 하거나 여러 일에 치여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힘들다. 그렇기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습관화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히 돌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진 듯하다. 이 챌린지는 아침 6시 혹은 그 전에 일어나든 이른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도전자들은 보통 새벽 4~6시에 일어나 책을 조금이라도 읽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한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을 위한 활동으로 시작해 하루를 보낸다.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느껴 자신을 보듬을 수 있다고 한다. 도전자들은 챌린지 덕분에 시간이 많아진 듯하다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특히나 할 일이 쌓여 새벽 늦게까지 일 처리를 하고 나면 알람의 도움으로도 일어나기가 힘들다. 주말에 몰아 자기 일수이다. 그러나 실패했다 해서 자책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자책의 늪으로 빠지는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가볍게 하여 실천해보면 좋겠다.

기자 권아현 doveforme@naver.com

## 2021 온택트 학습법 컨설팅 실시



온택트 학습법 컨설팅 실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6일부터 5월14일 동안 희망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온택트 학습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택트 학습법 컨설팅은 온라인을 통해 구조화 된 맞춤형 1:1 진단 해설과 학습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전체학과 재학생이 참여, 학습유형과 성격, 정서, 동기 등 학습과 관련한 본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추가로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 할 계획이다.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약 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본 온택트 학습법 컨설팅은 학생개인의 학습과정에서의 습관적, 행동적, 전략적 효율성을 측정하여 학습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추현심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본 센터에서는 학생 개개인별로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며 “이번 온택트 학습법 컨설팅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학생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간사 김성민



블랙스튜디오

제 1화

# 한림성심학보 웹툰

## 프로통학러, 수고했어 오늘도

글 : 심원보 / 최지연  
그림 : 김혜운 / 김민수



학생기자\_간호학과 3학년 박지호

안녕하세요. 올해 신입기자로 활동하게 된 3학년 간호학과 박지호입니다.  
저는 학교생활 중, 한림성심학보를 통해 학교 관련 정보를 얻었고 흥미로운 키워드의 기사도 읽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직접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보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도 학생기로서 학보를 읽으시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활동을 하는 동안 저는 3학년 학생으로서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그동안의 학교생활에서 얻은 정보, 노하우, 춘천 소식 등을 기사로 풀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학교 활동을 상대적으로 하기 힘들었던 새내기 학생분들, 예비 한빛인분들께 도움이 되는 기사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소식통으로서 항상 학보가 기다려지는 그런 유익한 기사를 작성하는 학생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기자\_간호학과 1학년 최지연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21학번 최지연입니다.  
지도 교수님의 소개로 학보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분위기의 학보사에서 기사를 쓸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학보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학교 내외의 다양한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기사를 읽는 분들에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기사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한림성심학보의 새얼굴, 학생기자들을 소개합니다



학생기자\_아트앤디자인과 2학년 엄지현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앤디자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엄지현입니다. 저는 평소 전공 프레임에 갇혀 관련된 활동들만 해왔었는데, 학교를 다니며 한 번쯤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할 일들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기자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책과 글을 자주 읽고 써왔습니다. 글에 대한 익숙함이 기사를 쓸 때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나 문맥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인터뷰"입니다. 고맙게도 이러한 기회가 일찍 찾아왔고 다른 기자님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인터뷰를 하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기사를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꾸준히! 도움 되는 좋은 기사들 써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생기자\_영상미디어콘텐츠과 1학년 심원보

안녕하세요! 2021년도 신입기자 영상미디어콘텐츠과 1학년 심원보입니다. 저는 활발하고 알찬 대학생활을 소망하여 학보기자단에 지원했는데요. 취재 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대됩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지만 더욱 발전해서 동료 기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학생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학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없는 우리의 이전 일상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